

# 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 문법 교육

최권진\*

## 1. 들어가는 말

외국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해당 외국어 학습자의 유창성의 제고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외국어 학습자의 최종 목표는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습자는 교수-학습의 시작 순간부터 학습자가 문법의 오류가 없이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도록 교수하고 학습한다. 따라서 언어소통능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외국어 교수 방법론에 있어서도, 외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구사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어 문법의 교수-학습도 필수적인 것이다.<sup>1)</sup>

---

\* 불가리아 소피아대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포함하여,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유무와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많은 다른 글들(김유정, 1998; 김중섭, 이관식, 1999; 손호민, 2002; 민현식, 2002)에서 검토되었고, 이 글의 주 논지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소의 한국어 문법을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동유럽 지역<sup>2)</sup> 대학교의 한국어 교과과정을 점검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한국어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필자가 10년이 넘게 한국어를 가르쳐오고 있는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자의 입장에서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문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동유럽 각국 대학교의 한국어교육

### 2.1. 폴란드의 한국어교육<sup>3)</sup>

대학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와 서부 포즈난 지역의 아담미츠키에비츠(Adam Mickiewicz)대학교의 한국어과 및 민족언어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전공 과정 외에도 두 대학교 모두 일본학과, 중국학과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또 2005년 10월 학기부터는 폴란드 남쪽의 크라쿠프 지역

2) 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유럽의 서부와 중부 지역에 위치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중부유럽(Central Europe)이라고 부르고, 유럽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구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등),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동유럽(East Europe)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총칭하여 동유럽이라고 한다. 또한 동유럽에는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다.

3) 폴란드의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는 이민희(2003)와 황혜나(2004, 2005)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의 야기엘로인스키대학교에서도 한국학 전공 과정이 신설되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사회 등의 지역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 과정 이외에 바르샤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대왕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원어민 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폴란드 대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모두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학문의 연구 방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특성과 차이점을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바르샤바대학교 한국어교육

폴란드에서는 한국어교육이 1953년 처음 시작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교에 있던 김춘택 교수가 바르샤바 대학교에 파견교수로 오게 됨으로써 그를 통해 한국어 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바르샤바대학교 중국어문학과의 강좌 중 하나로 '조선어'가 개설되었으며, 중국어 전공 학생들 중 4명이 조선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김춘택 교수는 1961년까지 8년 동안 조선어 강의를 맡으며 폴란드 내 한국어교육의 씨앗을 뿌렸다. 당시 수업을 받았던 학생 중에는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할리나 오가렉 최(Halina Ogarek-Czój)가 있었다. 오가렉 최 선생은 1995년에 중국어문학과를 졸업한 후, 그 다음 해에 김일성종합대학교로 유학을 갔으며, 그곳에서 학위(준박사)를 받았다. 1962년 폴란드로 돌아온 후 일본어문학과에서 조선어 교육을 맡게 되면서, 오가렉 최 선생을 중심으로 폴란드에서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춘택 교수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어(더 정확히는 조선어) 교사로 여러 교수를 폴란드에 파견했다. 이들 중 최운학, 김종근, 리동빈 교수는 오가렉 최 선생과 함께 한국어 교과서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점차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자, 1983년에는 ‘일본어문학 및 한국학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2년에 한 번씩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2년 이후로는 매년 10명이 넘는 신입생을 받게 되었다. 2002년에는 정원을 초과한 19명의 신입생이 한국학과에 들어오게 되어, 바르샤바대 동양학 연구소 산하에 있는 학과 중 일본학과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기와 비중을 차지하는 학과로 성장했다.

1989년 남한과 폴란드가 공식적인 수교를 한 이후에는 남한에서 교수들이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에 파견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이현복 교수(서울대)를 비롯하여, 이환목(전남대), 김재민(전북대), 배영남(전남대), 정정덕(창원대) 교수 등이 다녀갔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 교환연구원으로 바르샤바대에 와 있던 최건영 교수(연세대 노문과는)는 3년간 한국학과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오가렉 최 교수와 후스차(Huscza) 교수와 함께 서울 표준어로 된 <한국어 1, 2권> 교과서를 발행했다. 1991년에는 남한의 이현복 교수와 북한의 로길룡 교수가 함께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로길룡 교수를 마지막으로 북한으로부터 교수 파견은 중지되었고, 현재 한국학과는 폴란드 출신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한국학과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서울대 국문과 박사인 이민희 교수(현 아주대)가 오랫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쳐 왔다.

1994년에는 동양학 연구소(동양학부) 내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한국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제출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3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이들은 한국학과 교수로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sup>4)</sup> 현재(2005년) 약 50명의 재학생이 있다.

4) 바르샤바대 한국학과 교수진: 로무알드 후스차(Romuald Huszca, 문학박사, 교수), 요안나 루라쉬(Joanna Rurarz, 문학박사, 조교수), 크리스토프 야나시(Christoph Janasiak, 문학박사, 조교수), 에바 르나제흐스카(Ewa Rynarzewska, 문학박사, 조교수), 안나 보

바르샤바대학교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바르샤바대학교는 학석사 연계의 5년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다. 따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부과정이며, 4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석사과정이다. 한국어 학과의 강의는 주로 한국어 수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실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은<sup>5)</sup> 아래와 같다.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 커리큘럼〉

학년	과목명	시수(주당)
1학년	한국학 입문 (지리, 한자)	4
	한국어 연습	10
	현대 한국어 문법	4
	한국사 I	2
2학년	한국어 연습	6
	한국어 텍스트 강독	2
	현대 한국어 문법	4
	한국어 문체학	2
	한국사 II	2
	한국학 기초 세미나	2
3학년	한국어 연습	6
	한국문학사	2
	세미나	2
	한국어 텍스트 강독	2
	한국어 문체학	2
	한국사 II	2

야코프스카-꾸로프스카(Anna Wojakowska-Kurowska, 박사과정, 강사), 스타니스와프 류 마찌모또(Stanislaw Ryu Matsumoto, 박사과정, 강사), 도로타 오스트로프스카(Dorota Ostrowska, 박사과정, 강사), 김종규(석사, 강사), 이미현(학사, 강사). 이 외에 이민희 교수가 아주대로 옮기기 전인 2005년 상반기까지 이곳에서 강의를 했다.

5) 물론 교수진 수급 상황 및 학년별 학생들의 수준과 인원이 조금씩 달라 그때마다 수업 시수나 과목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한국 문학 및 문화 세미나	2 (선택)
	언어학 세미나	2 (선택)
4학년	한국어 연습	6
	한국어 텍스트 강독	2
	논문 지도	2
	한국 문학 및 문화 세미나	2 (선택)
	언어학 세미나	2 (선택)
5학년	한국어 연습	4
	한국어 텍스트 강독	2
	한국 문학 및 문화 세미나	2 (선택)
	언어학 세미나	2

개괄적으로 바르샤바대학교의 한국학과 커리큘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이수해야 하는 수업 시수는 최소 20시간이다. 그런데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와 경우 1, 2학년 학생들은 한국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이외의 다른 학과 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학년은 주당 총 14시간 동안 ‘한국어 문법’(4시간)과 ‘한국어 연습’(10시간)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2학년에서는 이 과목 수업시간들이 총 10시간이다. 이것은 적어도 2년 동안은 한국어 기초 실력을 다시는 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읽기-말하기-쓰기-듣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수업은 한국학에 입문하는 초보자들로서 갖춰야 할 기본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들, 예를 들어, 한국의 지리나 역사, 정치, 경제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강좌들이다.

2학년 때부터 ‘한국어 텍스트 강독’ 과목이 추가된다. 이것은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문장구조 이해 및 의미 파악, 활용 어휘의 확대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격적인 세미나 수업

의 초보 단계인 토론식 수업이 '한국어 문체학' 과목 또는 '한국학 기초 세미나' 과목에서 이루어진다.

3학년 과정에서는 '한국문학사' 과목이 추가되고, 본격적으로 한국학 전반에 대해 조사 및 토론이 이루어지는 '세미나' 과목도 마련된다. 아울러 3학년 때부터 제2외국어로서의 아시아권의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산스크리트 등)를 배울 수 있다. 3학년까지 한국어 공부를 끝낸 학생들은 대부분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을 직접 다녀오거나, 아니면 아예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오기도 한다.

4학년의 커리큘럼은 3학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 5학년 과정을 마치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석사 학위논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4학년 과정에서 '논문 지도'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다르다. 5학년 과정에서도 한국어 강의는 그대로 지속되지만, 강의 내용은 대개 학생들의 졸업 논문별 주제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과목마다 수업 시간에는 논문지도가 가능하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바르샤바대 한국학과가 시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한국어 연습'이라는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어 연습'은 한국인(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는 과목으로, 한국인 교사들은 말하기-읽기-듣기-쓰기의 전 영역에 걸친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까지 시행한다. 이론(문법)과 실습이 병행된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한국어 연습'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학년에 걸쳐 이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이 시간에 원어민에게서 직접 배움으로써 한국어 실력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를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절실히 원하는 과

목이기 때문이다.

2)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교육

1989년에 폴란드 서부 지역의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 도시인 포즈난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동양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2외국어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1998년에 민족언어학과에 한국어 전공과정이 개설되었고, 2003년에는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한국어과가 설립된 이후부터 매년 약 25명 정도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한국어과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sup>6)</sup>

학년	과목명	한국어과 (학년당 총수업시간)	민족어문학과 (학년당 수업시간)
1학년	실용 한국어	12	8
	한국 역사	2	
	언어학 개론	4	4
	문학개론	2	
	논리학	2	
	교육학	2	
	영어/독일어	4	
	러시아어	2	
	문화인류학		4
	인도유럽어		8

6)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진은 Olszewski Wiesław(교수, 역사학박사, 동양사), 황혜나(조교수, 문학박사, 비교언어학 ; 전학진 파견교수), 임성호(강사, 지역학 석사, 동유럽지역학), Agnieszka Wróblewska(박사과정생, 문학석사, 한국어학)이 있다.

2학년	실용 한국어	10	8
	한국어 문법	2	
	한국 문학	2	
	영어/독일어	4	
	러시아어	2	
	제2동양어	4	
	수리논리학, 기호학		2
	전산학 입문		2
	유저인터페이스		2
	인도유럽어		8
3학년	실용 한국어	8	8
	한국 문학사/한국 문학	2	
	제2동양어	4	
	한국 역사문법	2	
	한국 사정	2	
	영어/독일어	4	
	러시아어	2	
	전산학	2	
	(언어) 철학	2	2
	불교 논리학	2	
	심리학	2	
	사회언어학		2
	인도유럽어		8
	신문학/번역학/형태주의 언어학/경제학/교육학/언어치료		4
4학년	실용 한국어	8	3
	논문지도/석사과정 세미나	2	2
	제2동양어	2	
	영어/독일어	4	
	영문법/독문법	2	
	영미문학/독일문학	2	

	언어학(유형론)	2	
	한국 문화	2	2
	불교론	2	
	외국어 교수법	2	
	한국 사정		2
	인도유럽어		4
	신문학/번역학/형태주의 언어학/경제학/교육학/언어치료		4
5학년	실용 한국어	6	
	석사과정 세미나	2	2
	제2동양어	2	
	영어/독일어	2	
	한-폴/폴-한 번역	2	
	주제 강의	2	
	삼리 언어학	2	
	인도 유럽어		2
	신문학/번역학/형태주의 언어학/경제학/교육학/언어치료		4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바르샤바대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담비츠키에비츠대학교에서도 실용한국어 수업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대학교의 학생이 5년 동안 수강하여야 할 실용한국어 총 수업시간을 비교하면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는 총 960시간, 아담비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는 1320시간, 민족언어학과는 810시간으로 아담비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가 제일 많은 실용한국어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 수업은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는 총 240시간, 아담비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에서는 총 90시간(한국문법 총 60시간, 한국 역사문법 총 30시간(주당 2시간 한 학기))이 배정되어 있다.

아담비츠키에비츠대학교의 한국어과와 민족언어학과는 언어학 연구소

내에 소속하고 있으며, 이 언어학 연구소는 폴란드 내 어문학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뛰어난 연구 업적 및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의 한국어 한국어 교과 과정도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온 다른 외국어 교과 과목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곳의 한국어과에서는 총 수업 시간(3,600시간)의 절반인 1,800시간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에 배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보다 효율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언어학, 논리학, 교육학, 문학 개론, 심리학, 철학 및 기타 외국어 등의 인문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인문학 중 종교학으로 동양의 종교인 불교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내면에 깔려 있는 사상의 이해를 돕고자 한 점이 특이하다. 반면에 민족언어학과에서는 폴란드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인도-유럽어를 제대로 알아야 함을 강조하여, 한국어와 인도-유럽어의 수업시간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다.

## 2.2. 체코의 한국어교육<sup>7)</sup>

체코에서 한국학은 1950년 찰스대학이 철학부에 전공학과로서 한국학과가 개설되었으며, 1972년 은퇴시까지 한국학과를 이끌어온 Alois Pultr (1906-1992)와 깊은 관계가 있다. 1972년 이후부터는 한국학 연구로 익히 알려져 온 Vladimír Puck(1933년생) 교수가 2003년 은퇴시까지 학과장으로 일했다.

현재 찰스대학교 철학부 동아시아학 센터에 속한 한국학과는 초창기부터 5년제 석사 교육과정으로 기획되었다. 대개 복수전공으로 가장 많게는 원동아시아역사나 러시아학과 연계되거나, 또는 일본학이나 역사학과 연

7) 체코의 한국학에 관한 내용은 Miriam Lowensteinova(2003)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계되기도 했다. 1989년 이후에는 단수전공이 허용되어, 복수전공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졸업생의 취업난으로 1989년까지는 5년에 한 번씩만 과정이 개설되었으나, 1989년 이후는 관심의 증가와 교원수의 증가로 2년에 한 번씩 최대 1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초창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의 영향으로 한국학과는 북한과만 일방적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으로부터 도서를 입수하고 학생들도 북한으로 어학 연수를 다녀왔다. 이미 60년대부터 비공식 통로를 통해 남한의 도서를 입수하였지만, 남한과 공식적인 접촉은 1989년도에야 가능해졌다. 이 때부터 한국학과도 질적인 면에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본질적인 변화로 1991년 한국과 체코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1992년에 처음으로 체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위해 서울로 떠났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의 파견이다. 1989년 이전까지는 북한측의 교사조차도 없이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한국인 교수의 파견으로 인해 체코 한국학과 학생들이 원어민과 접촉이 가능하게 되어 기초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살아있는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다.

찰스대학교의 한국학과 교과과정은 초기와 별반 다른 점이 없이 언어, 문화 및 역사를 위주로 운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찰스대 한국학과는 5년제(3년 학사+2년 석사)로 2년에 한 번씩, 단수 전공(한국학만 전공)과 복수 전공으로 모집한다. 복수 전공의 교과과정은 다소 단축된 과정이다. 신입생은 강의실 수용 능력과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복수 전공을 포함하여 최대 10명의 학생들을 모집한다.

〈체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 커리큘럼〉

학년	과목명
1학년(학사)	철학 외국어 한국어 음운론 한국학 입문 한국어 문법 지리경제 총람 Proseminar 회화 연습 언어학 입문
2학년(학사)	한국어 문법체계 언어학 세미나 한자 입문 한국사 강독 회화 연습II 발음 연습
3학년(학사)	한국어 어휘론 문학작품 해석 한국 문학사 한국 현대사 기호문자 강독 문학 세미나 발음연습 제2동양어I 학부선택 외국어 원동아시아 사상 학사학위 취득시험 논문 발표 한국어 이론 입문 한국사 한국문학사
4학년(석사)	한국어 문체론 한국어 발달사 전문 text 해석 제2동양어II

	고전 해석 선택 세미나 통번역 연습 선택 강의
5학년(석사)	특수 text 해석I 고전 text 해석I 선택 세미나I 통번역 연습II 번역 세미나 선택 강의II 학부 선택 강의I 제2동양어III 선택 강의 III 학부 선택 강의II 논문 세미나 특수 text 해석II 특수 회화 석사취득 국가고시 논문 발표

학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어 기초와 문법 체계, 역사 및 문학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학사 학위 취득 시험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학사학위 취득시험에는 40쪽 분량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관심이 있을 경우 학생들은 학사과정 졸업 후 석사과정(4~5학년)의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세미나, 선택 과목 강의 및 특별 강좌를 통해 이미 습득한 지식을 심화하고 전공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한다. 석사 과정은 90쪽에 달하는 석사 논문발표를 포함하는 석사학위 취득 국가고시로 마치게 된다.

한국어에 대한 문법 수업은 실용한국어 교육에 치중하는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진다. 실용한국어 수업시간에 한국인 교사가 체코인 교사와 협력하여, 체코인 교사는 내용을 보충하고 틀리기 쉬운 부분을 교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도 해 준다. 교과목의 이론 부분에서 ‘한국어 문법’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이 과목 학점 취득 없이 학생들은 다음 학년으로 진학

이 불가능하다. 2학년에서는 언어의 이론과 실습이 이어지며, 이 과목의 학점 이수가 다음 학년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3학년은 학사 논문 준비 기간으로 2학기에 주제를 정한 후 담당 교수들과 논문을 쓴다. 한국어에 대한 이론 교육이 계속되며, 한국 문학작품을 위주로 강독이 이루어진다. 4학년에서는 한국어 언어 실습이 계속되고, 문법사(한국어 발달사)가 추가된다. 또 4학년에서는 다른 동양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다. 5학년에서는 학년말에 제출해야 하는 논문과 관련된 언어준비, 세미나, 강독 등에 치중한다. 교육 과정은 논문 발표를 포함한 국가고시와 한국어(이론과 실제), 한국어사, 한국 문학사, 원동아시아 사상 등의 기타 시험들로 석사과정을 마친다.

### 2.3. 헝가리의 한국어교육<sup>8)</sup>

헝가리의 한국어교육은 1970년대 말부터 실험적으로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어과 교수인 F. Martonfi(1945-1991)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실습생으로 한국어에 대해 연구한 후 귀국하여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중국어과 학생 몇 명에게 교외 보충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5편의 논문도 발표했는데, 그 중 한국어의 존대법, 국어사, 한글의 발생과 한국어의 인칭문제에 대한 글은 헝가리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감스럽게도 Martonfi 교수의 요절로 인해서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 말까지 중단되었다.

현재 헝가리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교육하는 기관으로는 부다페스트

8) 헝가리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Gabor Osvath(2003)의 도움을 받았다.

대외무역 단과대학과 부다페스트대학교 두 곳이 있다.

1) 부다페스트 대외무역 단과대학의 한국어교육

이 곳은 경제학과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1989년부터 제2외국어교육의 하나로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담당은 북한에서 유학한 Gabor Osvath 교수가 맡아오고 있다. 이 대학은 헝가리가 유럽연합에 정규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유럽연합의 요구에 맞게 주당 강의 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이게 되었고(이전에는 30~32시간),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학과 교수들끼리 자신의 강의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참여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경제학과 교수들이 강력하게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외국어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다. 외국어 강의는 과거에 주당 6시간이었지만, 현재 1학년만 6시간이고 2학년과 3학년은 4시간으로 감소되었다.

부다페스트 무역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교육되고 있는 한국어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년	학기	과목명	시수
1학년	1	한국어 입문(a)	15주/6시간=90시간
	2	한국어 입문(b)	15주/6시간=90시간
2학년	1	비즈니스 한국어(a)	15주/4시간=60시간
	2	비즈니스 한국어(b)	15주/4시간=60시간
3학년	1	한국어 비즈니스 communication	15주/4시간=60시간
	2	한국어 비즈니스 레터	15주/4시간=60시간
			총합계 420시간

두 학기 동안 진행되는 ‘한국어 입문(a, b)’을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 문

법의 기초를 익히게 된다. 4시간은 헝가리 교수가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문법에 대한 연습과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한다. 나머지 2시간은 학생들이 한국 교수의 지도하에 회화 연습을 한다. 교재는 Gabor Osvath 교수가 저술한 <한국어 입문 1, 2>(Koreai nyelv alapfokon, 무역대학출판사, 부타페스트, 1995-1996)가 사용된다.

‘비즈니스 한국어(a)’는 경제학 기초용어,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헝가리 경제의 현황, 남북한 경제의 비교분석 등을 다루며, 교재는 Gabor Osvath 교수가 저술한 <비즈니스 한국어 독본>(Külgazdasági olvasókönyv koreai nyelven, 무역대학출판사, 부타페스트, 1991)와 기타 자료가 사용된다. ‘비즈니스 한국어(b)’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한국의 일간 신문 기사를 읽고 분석한다.

‘한국어 비즈니스 communication’은 물건 구매, 은행 업무,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 대표단 안내, 수출입 협상, 취직 인터뷰 등을 다루며, Gabor Osvath 교수가 직접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어 비즈니스 레터’는 <비즈니스 영문서식> (이성식, 조은문화사, 서울, 1990)에 입각하여 소개서 쓰기, 이력서 작성, 추천장 작성, 견적서 작성, 회신 작성, 계약서 작성 등 실제 비즈니스 활동과 연관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목이다.

또한 정식교과 시간 이외의 보충 수업 형식으로 ‘한국의 역사와 지리’라는 과목을 K. Fendler 명예교수가 주당 2시간씩 가르친다. 학술진흥재단은 대외무역대학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명씩 파견교수를 보낸 적이 있다.

## 2) 부타페스트대학교(ELTE; Eötvös Loránd) 한국어교육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

으며, 이후 양국간의 경제와 문화 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측에서는 헝가리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교인 부다페스트대학교에 여타의 다른 동양언어 학과가<sup>9)</sup>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과가 아직 설립되지 못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으면,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다.

그리하여 한국어학과 개설의 예비단계로 1997년 9월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과목으로 '한국어, 한국사, 한국학 입문, 한국의 불교사,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무속,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화사' 과목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김보국 박사가 무역대학의 G. Osvath 교수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의 대다수는 중국어과, 일본어과, 몽고어과 학생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4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부다페스트 불교대학 학생들도 4명이 청강생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헝가리 학과 심사 위원회는 부다페스트대학교가 1997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한국어과 개설은 임시적으로만 허락을 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대학교의 재정적자, 한국학 교수요원의 부족에 유럽연합의 고등교육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의 영향으로 한국어과 개설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2004년 10월 학기부터는 한국측의 지원도 끊어진 상태에서 김보국 박사가 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9) 현재 동양언어학부에는 내부 아시아학과에서 몽고어와 티벳어가 전공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동아시아학과에서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이란어, 터키어가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 2.4. 루마니아의 한국어교육<sup>10)</sup>

루마니아에서는 1996년 부쿠레슈티대학교 외국어학부에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어 강좌가 첫 개설되었으며, 크라이오바대학교와 클루즈나포카 대학교에서도 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같은 해 개설된 바가 있다. 한국어 강의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정치학부, 경제학부 학생들,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기관(특히 외무부와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청강을 했다.

부쿠레슈티대학교의 동양어학부에는 전공으로 아랍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터키어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인도어과, 페르시아과, 히브리어과는 부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 강좌는 일반 교양선택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3-2004년도 학기에는 학진의 한국학 강사의 파견이 중단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지방의 클루즈나포카 대학교, 크라이오바대학교의 한국학 강좌는 이미 폐강이 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2004년 하반기부터 부쿠레슈티대학교에 대한 학진의 파견교수 제도가 부활되었으며, 현파견교수인 황정남 박사의 노력과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Diana Yuksel 선생의 노력으로 2005년 가을학기부터는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격상되었다.

부쿠레슈티대학교의 한국어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주당 2시간씩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초급반에는 주로 외국어학부의 1학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약 20명이다. 그러나 중급반 또는 고급반으로 갈수록 그 인원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중급반의 경우 초급반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5~6명 정도이며, 고급반의 경우 1~2명으로 줄어든다. 초급반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10) 루마니아의 한국학 현황에 대해서는 황정남(2004)의 도움이 컸다.

발생하여, 학기말이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 원인은 첫째로 한국학 강의가 교양 선택임으로 강의수강에 의무성이 없는데다가, 둘째로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격상되면서 수업시간이 늘어나, 학생들에게 문법 강의를 포함한 회화, 문화, 역사 강의 등이 이루어지면 중도 포기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재로는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출간한 <말이 트이는 한국어> 시리즈, 연세대에서 출판한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가 주로 사용된다.

한국학이 부전공으로 승격되어 운영되면 제1전공은 영어가 된다. 부전공으로 운영될 한국학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년	과목명	시수(주당)
1학년	한국어 실용회화	4
2학년	한국 문학 및 문화	2(강의)+1(세미나)
3학년	한국어학(형태론, 의미론 등)	2(강의)+1(세미나)
	선택과목	2(강의)+1(세미나)

## 2.5.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한국어교육<sup>11)</sup>

1989년 12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구(舊)유고연방은 이후 내전과 UN의 경제제제, 나토의 공습 등으로 유럽에서조차도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하지만 1999년 9월에 한국어 과정이 베오그라드대학교에 신설되고, 2002년 2월에는 한국과 대사급 관계가 정상화되는 등 양국간의 교류도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

1999년에 베오그라드대학교 어문학대학 동양학부에 한국어가 선택과목

11)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김선미(2004) 참조.

으로 채택됨으로써 시작된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한국어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특히 베오그라드대학교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 과정의 미비, 교원 부족, 지원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베오그라드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동양학부의 다른 언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1925년에 개설된 동양학부에는 현재 동양철학과, 아랍어문학과, 터키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히브리어문학과가 전공으로 교육되며, 선택과정으로 한국어과정, 페르시아어과정, 산스크리트어과정이 있다.

동양학부의 일본어문학과 1학년 학생을 예로 들면 전공과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0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졸업 전까지 총140학점 중 50학점의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과목인 한국어 과정은 어문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1학년~2학년 동안 2년간 수강해야 하는데, 1학년 과목으로 '한국어 1', 2학년 과목으로 '한국어 2'가 있다. 이들 과목 모두 주당 2시간 2학점으로 학생들은 선택과목인 한국어 과목에서 총4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2001/02학년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한 한국어 수강생은 2002/03학년도에는 1학년 0명과 2학년 2명으로 줄어 한국어 과정 자체가 위기에 처했으나, 2003/04년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1학년 13명으로 수강생이 늘었다. 2003/04학기부터는 일본학 개론 수업 중 4주가 한국학 개론에 할애되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학기말에 보고서 형식의 시험을 치른다.

현재 한국어 강좌는 베오그라드대학교에서 유고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선미씨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재로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나온 <한국어 1>과 <한국어 2>가 사용된다.

## 2.6. 불가리아의 한국학 교육<sup>12)</sup>

불가리아에서 최초로 한국어 강좌는 1992년 3월에 소피아대학교, 고대 및 현대어문학대학, 동양어문화센터에 개설되었다. 일본학 전공과 터키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제2아시아어 선택필수 과목으로 2년 기간의 과정에 일주일에 4시간씩 개설된 이 한국어 강좌는 실용 한국어(한국어 회화)를 위주로 한 과목으로 당시 한국 국비장학생으로 소피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필자가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어에서 교재(<명도한국어1,2>와 연세대학교 발행의 <한국어>)을 들여와 강좌를 진행했다. 이렇게 개설된 한국어 강좌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1995년 10월에 동대학교에 한국학 전공이 정식으로 개설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발칸 지역에서 최초로 한국학이 전공으로 개설된 것이다.

첫해에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은 옛 사회주의 시절의 교육법에 따라 5년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 다음 해부터 교육법이 바뀌어 한국의 대학과 동일하게 4학년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한다. 2005년 10월 현재 한국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은 50여명 정도가 된다. 현재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은 학부에 총 38명(1학년 13명, 2학년 9명, 3학년 6명, 4학년 10명)이며, 석사과정에 5명, 박사과정생이 7명이 있다. 학부는 한국의 학제와 비슷하여 4년 동안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한다. 석사는 1년반 과정으로 강의는 1년 동안 있으며, 반년은 논문 준비기간이다. 박사과정은 수업이 없이, 개인이 연구와 공부를 하고 최소자격시험을 보고,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 한국학 전공 졸업생 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다. 졸업생 중 한국정부장학금 또는 사비로 한국에 유학을 와서 서울대 국문과 박사

12) 불가리아 한국어 교육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는 최권진(2003) 참조.

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국내 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로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8명이 있다.

현재 소피아대학교 동양어문화센터는 4개 학과로 운영되는데, 동아시아어문화학과(한국학 전공, 일본학 전공, 중국학 전공), 터키-알타이학과(터키학 전공, 아랍학과, 고전아시아학과(인도학 전공, 이란학 전공, 아르메니아학 전공)이 있다. 동아시아어문화학과 각 전공은 매년 1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sup>13)</sup>

한국학 전공 소속 교수진은 최권진(부교수, 언어학박사, 전학진 파견교수; 실용한국어, 한자, 한국어문법 담당), Yanitsa Ivanova(조교수, 문학석사, 박사과정중; 한국현대문학, 한국문학입문, 실용한국어 담당), 김소영(조교수, 현학진 파견교수, 언어학박사; 실용한국어 담당), Alexander Fedotoff(교수, 문학박사, 티벳문학전공; 한국고대문학 담당), Svetla Kurteva-Dancheva(부교수, 언어학박사, 몽고-알타이어전공; 한국어문법, 통번역담당), Miroslava Dimitrova(전임강사, 문학석사, 박사과정중; 실용한국어, 한국어문법 담당), Irina Sotirova(전임강사, 문학석사, 박사과정중; 실용한국어, 한자 담당), Boyko Pavlov(시간강사, 국제경제문화 석사; 실용한국어, 한국어사, 통번역 담당), Veselin Daynkov(시간강사, 정치학 석사, 박사과정중; 한국근현대사 담당), Raina Stoycheva(시간강사, 문학석사; 한국학 입문)이 있다. 여기에 일본학 전공 소속으로 Svetlana Ivanova(조교수, 역사학 박사, 일본역사 전공; 한국역사 담당), Nako Stefanov(조교수, 경제학 박사, 일본경제전공; 한국경제 담당) 등이 한국학 전공에서 필요시 강의도 하며 학위논문 지도도 한다.

한국해외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1997년 7월에 한국학 전공은 단

13) 한국학전공은 최근 4년 동안 소피아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전공 가운데 스칸디나비아어, 일본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입학 성적을 기록했으며, 2005년도 입학시험에서는 일본학, 중국학에 이어 역시 세 번째로 높은 합격 점수를 기록했다.

독 5층 건물을 완공하여, 이곳에 강의실, 언어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수실 등을 최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피아대학교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이후 불가리아에 한국학을 보급시키기 위해 위 교수진에 의해 발행된 교재, 사전, 논문집, 문학번역서, 저서 등은 총 40권을 넘는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에서 현재 시행중인 4년제 학사과정 커리큘럼은 크게 4개의 세부 분야-1) 실용한국어, 2) 한국어학, 3) 한국문학, 4) 한국지역학(문화, 역사, 경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개설된 한국학 관련 강좌와 주당 수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년	과목명	1학기	2학기
		주당 수업시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한국학입문	4	
	실용 한국어	14	
	한국어-알타이언어학입문		3
	한국문학입문		3
	실용 한국어		14
	한국어 음성-어휘론		4
2학년	실용 한국어	10	
	고대한국사	3	
	고대한국문학	5	
	한국어 형태론	4	
	한국어 구문론		4
	중세 한국사		3
	중세 한국문학		5
	실용 한국어		10
3학년	실용 한국어	10	
	근현대한국문학	5	
	한자	4	

	실용 한국어		10
	한자		4
	한국어사		4
	한국문화		4
4학년	한국근현대사	2	
	실용 한국어	10	
	사회언어학	2	
	통번역		4
	실용 한국어		10

위 필수과목 이외에 교수진의 상황에 따라 전공 선택과목으로 한국전래동화, 한국민속학,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속, 한국경제, 동아시아불교, 동아시아음악, 한국영화 등의 과목들이 개선된다. 또한 일본학 전공생들에게 실용한국어 과목이 제2아시아어 선택필수 과목으로 주당 4시간씩 교수된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의 커리큘럼의 특징은 실용 한국어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교과과정에서 실용 한국어에 대한 시간 배정이 가장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학부 과정의 일차 교육 목표는 한국의 언어,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면서 졸업시에는 한국어를 구사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학부과정의 실용 한국어 주교재로 한국학 개설 초창기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행된 <한국어(전6권), 한국어 회화(전6권), 한국어 발음(전2권)>을 사용했다. 현재는 연세대와 경희대학교에서 발행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학년생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아 한국 일간신문의 기사 등도 부교재로 사용된

다. 위 교재들이 불가리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불가리아어를 사용하는 한국학 전공의 기초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김소영 교수와 필자가 공동으로 불가리아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기초편) (2003)>을 출판하여 1학년생들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실용 한국어 시간에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또한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고 숙지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여기에 소피아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는 한국어 이론(문법)에 대한 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위해 한국어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 한국어 능력의 정확도 향상에 교과목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 실용 한국어 구사 능력과 직접 관련된 한국어 이론 과목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교육내용을 교수요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한국어 음성론과 어휘론

- 수업시수: (주당 총4시간=강의3시간+세미나1시간/학기총수업시간 60시간)
- 평가: 시험(학습참여도 및 수시평가 점수 50%, 기말고사 50%)
- 교육 목표: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음성적, 문자적, 어휘적 특성을 알게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이 과목은 한국어의 음운체계, 기초음성법칙, 어휘의 역사적 발전과 상황, 그리고 서법의 특성을 학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실용 한국어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의 서법과 정서법을 익히는 연습활동도 포함된다.

- 교과 내용:

- 한국어 문자체계의 역사
- 한글의 창제와 보급
- 한글 체계의 역사적 변화
- 15세기 한국어 음운 체계
- 한국어의 모음 체계와 그 역사적 발전
- 단모음 및 복모음
- 모음 조화와 음장(音長)
- 자음 체계, 자음의 분류
- 발음 법칙
- 한국어 음절 구조
- 연음법칙, 비음화, 자음동화, 경음화
- 구개음화
- 한국어 어휘 구성
- 한국어 어휘의 발달
- 한국어 관용표현
- 한국어 어원 연구

- 기초 참고문헌:

- Fonologiya na koreyski ezik* (한국어 음운론). 최권진. 소피아, 1995  
*Koreyskiy yazuk* (한국어). 모스크바, 1961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Kim-Renaud. 서울, 1987  
*Studies in Korean Etymology*. Ramstedt, G.I. Msfou. 1949  
*Phonologic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Wan Jin Kim. 서울, 1992

(2) 한국어 형태론

- 수업시수; (주당 총4시간=강의3시간+세미나1시간/학기총수업시간 60시간)
- 평가; 시험(학습참여도 및 수시평가 점수 50%, 기말고사 50%)

- 교육 목표;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특성을 알게 하고, 한국어 텍스트의 형태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교과 내용;

- 명사 (종류와 용법)
- 명사의 수와 성의 표현 방법
-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
- 인칭 대명사
- 재귀 및 부정(不定) 대명사
- 의문 대명사
- 부정(否定) 대명사
- 수사 (종류와 용법)
- 형용사
- 존재사
- 지정사
- 불규칙 용언
- 용언 자동사와 타동사
- 조동사
- 부사
- 시제와 상
- 법(mood)
- 사동사와 피동사
- 조사
- 존대법 (형태와 표현방법)

- 기초 참고문헌;

*Morfologiya na koreyski ezik* (한국어 형태론), 최권진. 소피아, 1998.

*Koreyskiy yazuk* (한국어). 모스크바, 1961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Kim-Renaud. 서울, 1987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S. Martin. 도쿄, 1992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임호빈 외. 서울, 1988

『국어문법』. 서정수. 서울, 1996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허웅, 서울, 1995

(3) 한국어 구문론

- 수업시수; (주당 총4시간=강의2시간+세미나2시간/학기총수업시간 60시간)
- 평가; 시험 (학습참여도 및 수시평가 점수 50%, 기말고사 50%)
- 교육 목표;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문장의 구조와 이론을 알게 하고, 한국어의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한국어 텍스트의 활용을 돕는 데 있다.
- 교과 내용;
  - 한국어의 구문론적 특성
  - 문장 속에서 단어의 결합
  - 술부
  - 주어
  - 직접 목적어
  - 필수 목적어
  - 임의 목적어
  - 수식어
  - 부사구
  - 종속문
  - 복합문
  - 한국어 문장과 텍스트의 구문론적 분석
- 기초 참고문헌;
  - Koreyski sintaksis* (한국어 구문론). 스파스 랑겔로프. 소피아, 1998
  - 『현대한국어 통사론』. 남기심. 서울, 2001
  - 『한국어 통사론』. 권재일. 서울,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S. Martin. Vermont, 1992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임호빈 외. 서울, 1998

### 3. 결론을 대신하여

동유럽지역에서 한국어교육, 특히 문법 교육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3.1. 한국어와 조선어(북한말)의 상충

동유럽국가들 가운데 사회주의 붕괴 이전부터 한국어(엄밀히는 조선어)를 가르쳤던 나라는 폴란드(바르샤바대), 체코(찰스대), 헝가리(무역대)이다. 이들 국가의 한국학 전공자들은 당시 국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북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북한말을 배우고 돌아와 각자의 나라에서 북한말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1989-1990년도 사이에 동유럽에서 공산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민주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한 이후 북한이 이들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남한이 급속하게 대체했다. 한국어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남한 출신의 교강사들이 동유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동유럽국가들과 경제, 문화적 교류도 남한과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각 동유럽국가의 사회가 원하는 언어는 북한어가 아니라 남한어가 된 것이다. 그 동안 위 세 나라에서 북한어를 가르쳤던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남한말을 개인적으로 습득하거나, 남한에서 연수과정을 거쳐 재교육과 재충전을 하고 있지만, 이미 굳어진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한 언어가 상충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르샤바대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던 이민희(2003; 65-66) 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다.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는 서울 표준어이다. 남한에서 온 한국인 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고 또한 남한에서 제작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 말을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남한과 폴란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폴란드 학생들이 서울 표준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중에는 아직까지 북한말에 익숙하여 북한식으로 발음하거나 북한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서울말과 조선어를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이미 굳어진 언어습관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출판된 사전이나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한국어는 반드시 남한에서 사용되는 언어야 한다는 의식이 절대적이지 않다. 더구나 근래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하면서 일반 폴란드인이나 타 학과의 학생들 중에는 북한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폴란드 한국학과는 통일된 한국어교육의 지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몇몇 교수를 중심으로 그동안 담합적으로 이루어져 온 남한말에 기초한 한국어교육을 공식적으로 확정짓고 이에 따라 통일된 한국어 강의와 교재, 문법 사용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낱말 표기 및 용어 사용에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나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퇴임을 하여 물러나고 있고, 또 현직에 있는 학자들도 남한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들 있다. 헝가리의 한국어 학자인 Gabor Osvath 교수의 경우는 말을 할 때는 북한식 어투가 나오지만, 자신이 저술한 무역대학의 한국어 교재는 남한 출신 교사의 감수를 받아 모든 내용(상황설정, 대화내용, 어휘, 문법용어, 문화 내용 등)을 남한어에 기초하여 만들었다. 이는

시대적 변화를 포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동유럽지역에서도 한국어교육은 남한어를 기준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동유럽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증진되고, 또 한국이 한국(어)학의 해외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에 북한의 해외 한국학(조선학)에 대한 무관심으로 남한어가 북한어를 대체하는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동유럽의 사회변화 이후에 한국(어)학이 개설된 폴란드의 아담미츠키 에비츠대학교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니그로에서는 남한 출신 원어민 교사들이 활동하면서 남북한말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것이 출발하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소피아대학교의 경우 한국학 전공 개설 초기에 옛 소련(레닌그라드대 출신)과 북한에서 수학한 사람들을 교강사로 초대를 했지만, 대학 교원의 급여가 낮아 이들 모두가 사업을 하겠다며 거절을 했다. 그로 인해 한국학 전공 초창기에는 필자가 많게는 주당 24시간의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개설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학 전공 졸업생 중에서 3명이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불가리아에서 남한말에 기초하여 한국학이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3.2. 실용한국어 교육문법과 한국어 이론 과목의 결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의 학부과정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졸업 후 사업적 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4년간 계속되는 실용 한국어 수업이<sup>14)</sup>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의 정확성을 함양하기 위해 문법번역식

교수법도 동시에 실행된다.

실용한국어 수업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구성에 맞춰 실용 한국어 수업을 함과 동시에 그 교재에 등장하는 문법 사항을 설명하고 내재화를 위한 반복과 연습을 한다. 또한 앞장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살펴본 한국어 이론 수업에서는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한국어 문법 위주로 강의를 운영하며, 그 강의 내용이 실용 한국어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음성론과 어휘론' 수업 시간에는 이론 강의를 한 후에 실용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를 가지고 그 음성 음운론적 분석을 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발음법을 익히 수 있도록 교육·학습을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학습한 후에 교재의 텍스트를 가지고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그 텍스트의 실제 발음을 라틴문자(발음기호) 또는 키릴문자로 전사하는 활동을 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 규칙을 내재화하도록 교육한다. '한국어 형태론'과 '한국어 구문론'으로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어, 매 회 이론 강의 이후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에 맞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습 활동을 한다. 텍스트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여 찾기, 주어 찾기, 목적어 찾기 등등의 분석 활동을 통해 한국어에 관한 배경지식과 직관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법 규칙을 익히고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보다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 3.3. 문법 교재 개발

단일 언어권의 학습자로 구성된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은 수업의

---

14) 실용 한국어 수업은 석사과정에서도 주당 4~6시간씩 실시가 된다.

매개 언어가 당연히 불가리아어이다. 실용 한국어와 한국어 이론 수업도 불가리아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국학 개설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불가리아어로 된 교재가 없었던 것이었다. 실용 한국어 교재는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교재들이 기초 과정 부분은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불가리아어로 된 한국어 문법서가 없어 수업 운영이 어렵고, 또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실용성에 중점을 둔 한국어 문법서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한국어 음성음운론 교재인 *Fonologiya na koreyski ezik*(한국어 음운론, 최권진, Shambhala, 1995)가 개발되었다. 이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보고, 불가리아어 음운 체계와 비교했으며, 또한 음성음운론의 관점에서 상대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자주 겪는 음운간섭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 형태론의 교재는 *Koreyska morfologiya*(한국어 형태론, 최권진, 소피아대출판부, 1998)가 발행되어 있다. 이는 필자가 서정수의 <국어 문법, 한양대 출판원, 1996>을 기초로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불가리아인 학습자에게 실용 문법서가 되도록 쓴 책이다. 한국어 조사는 별도로 그 형태, 의미, 용법이 정리되어 *Modeli na slovo-i formoobrazovaneto v koreyskiya ezik*(한국어의 어휘 및 형태 구성 요소, Svetla Kurteva-Dancheva & 최권진, Shambhala, 1997)로 발행되어 있다. 한국어 구문론 교재로는 *Koreyski sintaksis*(한국어 구문론, Spas Rangelov, Exel-M, 1998)가 기본적인 구문 구조를 다룬 교재이다. 외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문법을 교육하고 문법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 표준 문법서가 없어 다양한 어느 이론(주장, 견해, 문법서)에 기초하여 교육과 문법서 작성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국립국어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가 발간되었다고 하니, 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더 나아가 그 표준 문법

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워크북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자료 접근이 제한된 외국의 상황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법서와 그 워크북들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sup>15)</sup>\*

[주제어] 한국어,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 한국학, 동유럽

## 참고문헌

- 김보국(2004),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과 유럽의 한국학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헝가리 상황을 중심으로」,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 SemaRSh, 소피아.
- 김선미(2004),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 SemaRSh, 소피아.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 교육』, 9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재욱(2005), 「문법 교육 방법론」, 『한국어 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 김제열(2005), 「문법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 김중섭, 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15)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한국어 문법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백봉자, 연세대 출판부, 1999>과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이희자, 이종희, 한국문화사, 2001>이다.

\* 본 논문은 2005. 11. 29 투고되었으며, 2005. 12. 4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어 교육』, 10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2),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방성원(2005), 「문법 교수 학습의 방법과 내용」, 『한국어 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 손호민(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미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희원, 최권진 편(2003), 『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SemaRSh, 소피아.
- 이민희(2003), 「폴란드 한국어 교육의 커리큘럼」, 『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SemaRSh, 소피아.
- 최권진(2003),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 『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SemaRSh, 소피아.
- 최권진 편(2004),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 SemaRSh, 소피아.
- 황정남(2004), 「루마니아의 한국학 현황」,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 SemaRSh, 소피아.
- 황혜나(2004), 「폴란드 한국어 교육 실태 및 대안」,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 SemaRSh, 소피아.
- 황혜나(2004), 「폴란드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8. SemaRSh, 소피아.
- Lowensteinova, Miriam(2003), 「체코에서의 한국학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SemaRSh, 소피아.
- Osvath, Gabor(2003), 「헝가리에서의 한국어 교육」, 『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SemaRSh, 소피아.

■ Abstract

## Teaching the Korean Grammar in East Europe

Choi, Gwon Jin

Every learner of a foreign language wants to command the target language as fluently as a native speaker of it. Even though the prevailing foreign language teaching theory puts its emphasis on the increase of the communicative language competence of the learner, it is inevitable to teach and learn the grammar of the target language so that the learner may use the language accurately.

This paper looks into the history, current situations and the curricula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nd east European universities, their peculiarities and then, more specifically, the curriculum of Korean studies and the Korean grammar teaching at Sofia University, Bulgaria. This paper shows that the Korean grammar teaching take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curricula and that it has a more practical application rather than a theoretical one.

This research reveals that in some universities there are some conflicts between the north Korean variant and the south Korean variant of the Korean language concerning which variant to be taught.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south Korean variant will prevail in the end in those universities. He suggests that the practical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combined with the Korean grammar courses with practical, not theoretical, cont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He maintains that much books and workbooks on the Korean grammar should be developed for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learners abroad.

[Key Words] Korean Language, Korean grammar, curriculum, Korean studies, East  
Europe